

대학교육의 펀더멘탈



김 인 세
부산대학교 총장

20년 동안 하버드대학의 총장을 지낸 데릭 보크(Derek Bok)는 대학교육의 목적은 전문 분야의 깊이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광범한 다른 분야의 지식을 함께 섭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능력을 기르며, 인류 문화, 사회현상, 그리고 자연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즉, 건강한 사회의식을 가진 시민들을 양성해 내는 것이 바로 대학교육의 기본(fundamental)이라는 말이다. 이는 지식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요구하며, 이러한 인식은 독서와 토론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독서와 토론이 지난 수세기 동안 대학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연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교육의 기본 목적은 최근 들어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으며, 기초학문의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 속에서 많은 대학들이 교육의 본질적 목적과는 동떨어진 지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대학에서조차 실용서적이 아니면 읽히지 않으며, 강의실에서 '토론'이 실종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앨런 블룸(Allan Bloom)이 이미 20년 전 『미국 정신의 종말(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을 통해 지적한 것처럼,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갖도록 하는 노력보다는 직업 훈련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

대학문화의 상징이었던 독서와 토론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전히 캠퍼스는 자유분방하고 생기발랄한 젊은이들로 넘쳐난다. 그

런데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것이 있다. 엄숙주의에 물든 기성세대의 편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무지 그들에게서는 진중한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순간의 재치는 뛰어나지만 논리적 사고나 창의성은 보이지 않는다. 문제를 잡고 끙끙거리려 하지 않고, 생각이 떠오르면 일단 뱉어내어야 한다. 마치 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것 같다. 게임이나 채팅에는 새벽까지 매달려 있으면서 책장을 넘기며 앉아있는 30분은 너무나 지루해 한다. 자신감에 넘치지만 경솔하다. 똑똑하기는 한데 무식하다. 교수들은 말한다, “작년 아이들은 이렇게 많았는데…….”

서양의 경우에 매주 새로운 텍스트를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는 수업이 매우 일반적인 반면, 우리의 강의는 주교재를 2~3권만 선정하더라도 의아한 표정들과 마주치게 된다. 더욱이 최근에 두드러지는 영상/전자매체에 대한 대학생들의 배타적 의존은 이들이 구조적, 선형적(linear), 합리적 사고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순서대로 일을 풀어나가려 하지 않고 마치 하이퍼텍스트를 옮겨 다니듯 이것저것 기웃거리기만 할 뿐이다. 텍스트보다는 영상문화(image culture)에 더욱 친밀감을 느끼는 그들에게 대학 강의를 통한 지적 도전(intellectual challenge)은 고리타분한 것으로 인식될 뿐이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은 학문적 논쟁이기도 하지만 현실적 논쟁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요건은 토론 참여자가 어떠한 현상을 고정된 시각으로 보지 않고 다른 주장이나 논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 수용성(susceptibilit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학교육이란 결국 특정

현상을 사회 주류의 관점이 아닌 또 다른 각도로부터 관찰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훈련이다. 즉,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왜 습득해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하자면 지식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감수성(critical sensitivity)을 갖도록 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본질인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수용력을 연마하는 도구는 다름 아닌 책읽기이다. 독서야말로 타인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유에 이르도록 하는 가장 강력하고 검증된 수단이며, 그 마당을 열어 주는 것이 대학교육의 역할이다. 반면, 우리의 교육 관련 논의는 주로 기능적인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본’에 대한 고려를 결하고 있다. 복잡한 이론이나 정책, 커리큘럼 등은 많이 거론되지만, 책 한권 읽을 시간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미국의 대학들에서 개설하고 있는 많은 과목들의 교수계획표 마지막을 장식하는 지침이 다름 아닌 “Read! Read!! Read!!!”라는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대학교육의 문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외형의 변화보다는 펀더멘탈(fundamentals)을 강화함으로써 내실을 기하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대학교육은 독서와 비판적 사고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대학은 학생들 스스로가 대학에서 제공되는 모든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지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고, 학생들이 폭넓은 문화수용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한 ‘지적 자유인’을 길러내는 교육으로부터 진정 대학의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